

2021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가이드북




서울특별시

동물권행동 카라

2021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가이드북

 서울특별시 동물권행동 카라

# 목차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가이드북을 펴내며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개요

- ① 길고양이 현실과 보호조치로서 이주의 필요성 9
- ② 현실적 제약 극복해 나가기 12
- ③ 2021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소개 17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방법

- ① 사전 작업
  - 1. 신청 접수 25
  - 2. 현장 조사 28
  - 3.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축 32
  - 4. 활동 계획 수립 34
- ② 현장 활동
  - 1. 길고양이 집중 TNR 36
  - 2. **급식소 이동**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 39
  - 3. 차선책으로서 **계류장**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 64
- ③ 사후 활동
  - 1. 이주 모니터링 70
  - 2. 지속적인 급식소 청결 관리와 유지 71
  - 3. 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 주도의 캠페인 활동 71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 Q&A

73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 ① 전국적인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제고 87
- ② 행정기관내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89
- ③ 케어테이커들의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 주체적 참여 91

## 용어설명 93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가이드북을 펴내며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토건 국가로 크고 작은 개발과 건축 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건축 행위에서 막대한 건축 폐기물이 발생하고 새들은 동지를 잃으며 유령처럼 살아가던 길고양이들은 생존마저 위협받습니다.

도시 길고양이 개체군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들과 맺고 있는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은 사안을 다루는 우리들의 모습과 능력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구역 공사 현장을 고향으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길고양이들의 보호 대책 마련은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존하지만 부정되어 온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일은 침묵하는 약자를 돌아보는 당연한 과정을 비로소 소환해 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고 품위를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동물들은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고 판단하며 생을 영위해 갑니다. 뛰어난 지력과 신체 능력으로 척박한 도시 환경에도 생존해 온 길고양이들이지만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서식 환경의 변화와 영역 자원의 소실은 감당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자체로 대규모의 구조적 동물복지 침해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여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단체로서 7년여 전부터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이주와 보호 대책 마련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작은 이웃, 길고양이들의 성공적 이주와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발조합은 길고양이 이주와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건설사의 이후 건설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시공사와 조합이 안전한 건축을 하면서 동물들의 안전도 고려하도록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이주의 과학적 방법과 실행을 자문하고 조력하며 관청과 조합 시공사의 협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 스테이크 홀더는 케어테이커들입니다. 평소 길고양이 개체군을 관리 관찰하며 보호해 온 케어테이커들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장소로 움직이게 할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들을 생명의 길로 불러올 수 있는 그들, 케어테이커들의 활동은 올바르게 평가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항과 근린공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도를 벗어나면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 지역 동물보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카라 활동가들이 여러 날 거리에서 고양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픈 동물을 치료하며 노력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법률적 근거와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이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울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구역 혹은 재개발지역 길고양이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관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한국 길고양이들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재개발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 지원 사례가 정리된 본 보고서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한 마리라도 더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순수한 열정으로 동물들을 위해 애써주신 케어테이커님들과 카라 활동가들 그리고 병원 선생님들과 본 사업을 마련해 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약 9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중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길고양이를 불편해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길고양이는 잦은 굶주림과 목마름, 척박한 환경 속에서 평균 수명의 반도 되지 않는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특히, 도시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의 길고양이는 그 생존이 더욱 위협받기 십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민주주의 서울 계시판에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 달라’는 가슴 따뜻한 제안이 올라왔고, 무려 약 5천6백여 명의 시민들이 그 의견에 많은 공감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1월 9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② 시장·도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2020년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21년에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그 소중한 사례들을 참고로 이와 같은 가이드북을 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앞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보호활동의 실제 사례를 들여다 보면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자치구 주거환경정비부서, 동물보호부서 등), 조합 및 시행사, 지역 케어테이커 등의 공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이 가이드북을 참고로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과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들이 협력하여 사람의 욕심으로 진행되는 정비구역에서 길고양이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줄여주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다양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개요

1

## 길고양이의 현실과 보호조치로서 이주의 필요성

시민들의 생활 환경에서 마주치는 동물 중 '길고양이'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우리사회 내 또 다른 구성원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현대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겠다는 미명 하에 규모를 막론한 도시정비 사업들이 우후죽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을 잃는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서울시가 진행한 길고양이 서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약 11만 6천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구역은 517개소(`22. 1월 기준), 도시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상의 사업 구역은 100여 곳이 넘는다. 많은 수의 도시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지만, 그 안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길고양이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순간에 벌어지는 갑작스러운 영역 상실은 로드킬 사고를 빈발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 소음을 피해 건물 구석으로 들어가 출산한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을 놓쳐 매몰되기도 한다.

동물의 생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우리사회는 빈번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삶을 잃게 되는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않고 공존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로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와 안정적인 급식소 이동을 통한 주변 지역으로의 이주가 기본이 되는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이 그것이다.

영역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고양이에게 이주란 단순한 이동 개념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일이다.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고양이의 생애주기와 생태를 인지하고,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

- 🐾 영역 이동시 현재 영역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고양이의 영역 본능
- 🐾 이주 예정지의 급식소 존재 및 그 곳에 서식하는 고양이들의 밀도와 중성화 여부
- 🐾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임신 포유 여부

실효성 있는 이주의 전제조건은 바로 안정적인 급식소와 중성화 수술이다. 특히 중성화수술은 도시정비기간 동안 축소되는 영역 자원과 낯선 개체와의 만남에 따른 다툼 최소화를 위해 절대적이다. 길고양이들은 규칙적으로 먹이가 공급되는 고정된 급식소를 통해 영역을 확보한다. 케어테이커가 안전한 주변지역으로 꾸준히 급식소를 이동시킴으로써 고양이들의 이주가 가능하기에 급식소 설치와 관리는 필수적이다. 고양이의 영역본능으로 익숙한 서식지였던 도시정비구역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동된 급식소를 기억하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배회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중성화 수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이주 예정지에서의 안정적인 흡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개체군 증가가 있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영역과 먹이 자원을 요구함으로써 신규 개체 유입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이주 예정지역의 서식하는 고양이도 동일하게 중성화 수술(TNR)이 적용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 간의 노력과 협조가 부재하다면 안정적인 이행과 성공적인 길고양이 이주는 불투명하다.

이해관계자, 특히 주민과 동물과의 공존에 밀접한 행정기관인 자치구의 참여는 실효성 있는 길고양이 보호 방안 마련에 필수라 볼 수 있다. 2021년 동물권행동 카라와 서울특별시가 진행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은 이를 전제로 과거보다 자치구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이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보더라도 해당 현장에 대한 정보, 자치구 주민인 케어테이커와의 소통,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력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자치구 자체적인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 본 가이드북은 사업에 참여한 자치구 내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길고양이 보호 활동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각 행정기관에서 사람과 동물과의 공존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현실적 제약 극복해 나가기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도시정비구역에서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을 돌파해야 함을 암시한다. 가령 영역을 지키는 고양이의 생태적 습성, 활동 주체자의 현장 접근성 어려움, 변화무쌍한 철거 상황 등이 그러한 제약이 될 것이다.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동물보호법과 TNR(trap-neuter-return)이라는 국가 길고양이 보호 방안을 법적 근거로 가지는 중요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이다. 효과적인 정책 실현과 동물복지 확보를 위해서는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과 길고양이의 생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목적

- 🐾 도시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와 이주 예정 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집중 TNR을 실시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길고양이 생존 위협 및 복지 훼손 문제의 심화 예방
- 🐾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하는 생태 친화적 도시정비 사업의 올바른 사례 제시
- 🐾 조합, 건설사, 행정기관, 케어테이커, 동물보호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동물 생명이 존중된 도시정비구역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하며 공동의 노력 실현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본 생태 이해

- 🐾 고양이는 먹이와 생식을 기준으로 영역을 공유하는 소집단(colony)으로 분포하며 이때 특히 암컷에게 먹이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 수컷은 암컷들의 분포에 따라 좀 더 너르게 영역을 유지한다. 고양이들은 느슨한 영역을 가지지만 이들의 영역은 가변적이다. 가장 가깝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학습하며 조금씩 영역을 이동한다. 고양이는 생존을 위한 기억력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사냥에 성공한 장소, 먹이 자원이 공급되는 장소를 잘 기억한다.
- 🐾 고양이들은 한 배에 후손을 여러 마리 낳아 번성케 하는 종 보전 전략을 가지는 동물로서, 평균 63일의 임신기간을 가지고 한 배에 2~8마리를 출산하며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포유를 한다. 먹이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전제에서 암컷 고양이는 연중 임신이 가능하지만 일조량과 기온이 적합한 봄과 가을



에 주로 임신과 출산을 한다.

- 고양이는 대체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발정 시 짝을 찾기 위한 커다란 발정 콜링(발정울음)과 밀도 높은 지역에서의 (수컷)고양이들의 짝은 싸움이 이를 반증한다.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 후손을 퍼뜨리며 높아진 밀도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개체수 과밀은 고양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고양이들간 싸움, 암컷들의 발정동기화에 의한 짝은 임신과 어린 개체의 발정, 범백혈구감소증, 구내염 등 치명적 질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 케어테이커가 홀로 감당하기에 그 규모가 너무 커 좌절하기도 한다. 특히 길고양이의 특성을 이해하는 동물보호단체나 길고양이와 유대관계를 갖고 돌봄 활동을 해 온 지역의 케어테이커 등 민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해 왔다.

동물보호 인식의 결여와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곧 이해관계자들의 비협조로도 연결이 된다. 경제적 수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에서 동물보호 활동은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자 도시정비구역 내에서 케어테이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케어테이커는 정비구역 내 출입에 있어서조차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지자체 TNR은 케어테이커가 신청을 해도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길고양이 보호가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다. 집중 TNR(단 회에 최대한 많은 개체수를 포획하는 방식)이 시급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케어테이커들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다.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도시정비 사업 시 동물 보호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 행정기관, 조합,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사안의 심각

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고양이 '이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고 이에 따라 실행을 해나간다면 많은 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규모가 크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목표 하에 행정기관, 조합, 케어테이커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이 이주하고 떠난 도시정비구역 현장에서 케어테이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공동의 활동은 긴요하다. 다음은 세부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을 알아보겠다.

활동	목적
적극적인 TNR (집중 TN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체수 증가 억제</li> <li>· 중성화를 통한 영역 싸움 피해 최소화</li> <li>· 미숙한 새끼의 임신과 수유 중인 어미의 피해 최소화</li> <li>· 발정기 스트레스 및 수컷들의 싸움, 그에 따른 소음 방지</li> <li>· TNR 후 먹이 의존도를 높인 후, 급식소 이동을 통한 안전한 서식지로 영역 이동에 도움</li> </ul>
예방접종 (범백, 칼리시, 허피스, 광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을 이동해야하는 상황에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 향상</li> <li>· 영역 이동 시 질병 발생 및 전파 감소</li> <li>· 집단 면역 확보</li> <li>·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지역 공중 보건 향상</li> </ul>
구내염 등 질병 치료와 내·외부 기생충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내염, 외상 등 고통을 초래하고 복지를 훼손하는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저항력 강화</li> <li>· 내·외부 기생충 구제로 기초 건강 및 공중 보건 향상</li> </ul>
영역 이동이 어려운 어린 개체 입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 가능성 희박한 어린 개체 등 영역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는 개체 구조 후 입양 추진</li> </ul>
보호활동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정비구역 내 TNR 또는 질병 치료 후 돌봄이 필요한 고양이 보호</li> <li>· TNR 또는 질병 치료 후 방사 개체 및 입양 개체에 대한 마이크로칩 치핑으로 개체수 파악 및 개체 관리</li> <li>· 길고양이 학대 등 동물대상 범죄 예방 추진</li> </ul>

3

## 2021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소개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 활동에 있어서 자치구의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지 선정 기준부터 진행 방식까지 자치구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개요와 과정,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희망한 3개의 자치구(동작구, 성북구, 송파구)를 선정하여 해당 자치구 내의 도시정비 구역에서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케어테이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접수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신청지별로 최소 2회 이상의 현장 조사와 케어테이커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케어테이커들의 의지와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지의 현장 상황과 철거 시기 등 지원의 시급성을 중점으로 최종 사업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거쳐 이주 예정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설정한 뒤 사업 신청자인 케어테이커와 함께 단계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 및 필요시 치료를 진행했다. 제자리 방사 후 급식소의 점진적 이동을 통한 근거리 이주를 시작했고, 완전히 이주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2022년 상반기에도 케어테이커의 주도 하에 고양이 이주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방법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 순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이주 활동에 있어 중요한 개념 및 요소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도시정비구역 집중 TNR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고양이 급식소 관리를 전제로 한 TNR은 길고양이의 번식을 예방함으로써 길 위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한편 고양이들 간 영역 다툼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활동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 대상 길고양이 개체수와 직결되며, 정착 이주를 감행해야 하는 시기에 고양이 출산과 육아 중에 있으면 성공적인 이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중성화율이 높은 편이라 하더라도 도시정비사업 예정 지역은 단 회에 대다수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집중TNR이 필요하며, 평시 TNR은 이주가 임박한 상황에 도움이 된다.

## 이주 예정지 집중 TNR

길고양이 집중 TNR은 도시정비구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이주 예정지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주 자체가 어렵사리 이뤄져도 이주 예정지의 길고양이 TNR 비율이 낮으면 새로운 서식지에서 개체 증식이 일어나고 영역 다툼이 예고되는 등 결과적으로 이주 후 길고양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어렵다.

##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

이주는 길고양이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으며 중성화 수술 시 예방접종, 구충까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 ① 건강 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상당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② 치료 후에도 잘 회복되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제자리 방사가 불가능한 경우
- ③ 유기내지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발견된 경우
- ④ 출산이 임박하거나 막 출산하여 새끼들까지 돌봄과 입양 추진이 필요한 경우
- ⑤ 특정 지역에 동물 학대범이 있어 제자리 방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비함이 필요하다. 특히 ①의 경우 상당한 의료비용은 케어테이커가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TNR 예산과 더불어 합리적 수준의 길고양이 치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②의 경우 케어테이커와 협의를 통해 길고양이의 복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이 중요하다. ③~⑤의 경우는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카페나 안락사 없는 임시보호소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입양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안정적인 실내 돌봄이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철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정비구역 내 공가(空家)를 활용할 수 있다.

## 길고양이의 ‘자발적인 근거리 이주 우선 원칙’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회귀 본능을 고려할 때 포획 후 이주 예정지에 바로 방사하는 강제 이주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존율 또한 낮다. 최근 일각에서 무단 포획하여 제자리 아닌 장소에 방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이주가 아니라 잘 살고 있던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다.

‘급식소 이동’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길고양이 스스로 이주 예정지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 하게끔 유도하는, 근거리 이주 방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장 안전한 이주 방법으로서 권장된다. 이는 평시 해당 고양이의 영역 활동에 이주 예정지를 각인시켜 놓음으로써 기존 서식지에 위험 상황이 닥치면 해당 고양이는 학습된 이주 예정지로 자발적 이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급식소 이동’을 통한 근거리 이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에서는 이주 예정지에 ‘계류장’ 운영을 통한 ‘포획 → (수개월 동안) 계류장에 계류 → (계류장 문을 열어) 계류장 주변에 방사’라는 차선책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강제 이주인 만큼 새로운 이주 예정지에서 적응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이 경우 계류장을 설치할 장소 물색과 설치 및 돌봄과 관리, 계류장 철거 등 여러 세부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도시정비구역 내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키는 가장 정석인 방법이자 본 사업의 실제 내용은 크게 사전 작업, 현장 활동, 사후 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사전 작업

### 1. 서식 현황 조사

- 🐾 도시정비 사업 예정지의 길고양이 서식 현황 파악
- 🐾 케어테이커 정보 기반의 개체수, 임신 여부, 질환 등 구체적인 개체 파악

### 2. 일정 계획 수립

- 🐾 도시정비 사업지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및 어느 단계 (특히 철거와 착공 시기)에 와있는지 확인
- 🐾 이해관계자 확인 및 간담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간 사전 협의
- 🐾 철거 시작 전 길고양이 이주가 완료되도록 일정 계획 수립

### 3. 고양이 근거리 이주지역 찾기

- 🐾 길고양이 ‘근거리 이주 우선 원칙’에 따른 안전한 이주 예정지 탐색
- 🐾 이주 예정지역 길고양이 서식 현황 및 급식소 조사
- 🐾 필요시 이주 예정지역의 케어테이커/관공서 소통 및 이주 예정지 확정

## 1

## 사전 작업

## ② 현장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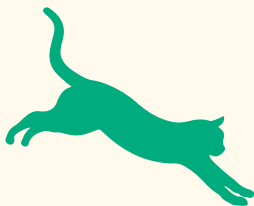
## 4. 집중 TNR 및 점진적인 급식소 이동

- 🐾 근거리 이주를 위한 급식소 이동경로 설정 및 일정 계획에 맞춘 실행
- 🐾 도시정비구역 및 이주 예정지역 대상 집중 TNR 실시: 근거리 이주 시에도 '제자리 방사' 원칙 준수
- 🐾 이해관계자 소통 및 자원 활용: 케어테이커 출입 협조, 계류 공간 협조, 필요시 고양이 생태통로 협조 등

## ③ 사후 활동

## 5. 이주 완료 및 모니터

- 🐾 철거 시작 전 길고양이 이주 완료
- 🐾 고양이 이주 후 새로운 서식지 정착 모니터



## 1. 신청 접수

관할 구역 내 도시정비구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케어테이커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실명과 연락처, 거주지가 기재되어 신청자의 정확한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인 지역 케어테이커의 상세한 현장 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고양이들의 이주 작업은 케어테이커의 주도 하에 이뤄지므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청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해당 현장에서 활동 중인 케어테이커들의 인원수와 결집력, 전문성에 의해 똑같은 도시정비구역의 고양이일지라도 그들의 처우와 고양이 이주의 성공률이 높게 달라질 수 있어 케어테이커 그룹에 대한 정보 파악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주하고 철거가 임박한 곳일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도시정비구역의 정비 사업 단계 확인도 중요하다.

또한 신청서를 통해서 오직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지역 케어테이커만 알 수 있는 고양이 개체수 및 대략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면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신청서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재개발 <input type="checkbox"/> 재건축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인원수: )명 (단체 이름: )
	성함	연락처	주소 (단체의 경우 대표자 포함 2인의 정보 기재)
현장 주소 및 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 위치, 규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역을 표시한 지도 첨부 필수) 예시. 000구 00제1구역, 00동 000번지 일대)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개체수	총 ( )마리 암 ( )마리 수 ( )마리	중성화 수술 완료 개체수	총 ( )마리 암 ( )마리 수 ( )마리
		중성화 수술 필요 개체수	총 ( )마리 암 ( )마리 수 ( )마리
제자리 방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사유: ) <input type="checkbox"/> 일부 불가능 (사유: )		
수술 후 병원계류 불가 시 계류공간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형태	<input type="checkbox"/> 공가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input type="checkbox"/> 케어테이커의 집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역 현황	(지역민들 이주 종료시점과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 지역특수성 자세한 내용)		
이주 대상 지역 길고양이 중성화율	총 ( )마리 완료 ( )마리 미완료 ( )마리	이주 대상 지역 길고양이 급식소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 )개 <input type="checkbox"/> 무
		이주 대상 지역 케어테이커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b>협력 가능 여부</b>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TNR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NR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하셨습니다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이주 계획	(건설사, 재건축 조합 등과의 협업 방안, 이주 계획 기간, 이주 예상 구역, 이주 방법 등 이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		
<p>◦ 시행 내용 : 중성화 수술, 개체 관리를 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p> <p>본인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진행하는 2021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2021년 월 일</p> <p>신청인: (인)</p>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구 길고양이 보호활동 참여자 모집

서울시 동물권행동 카라가 진행하는 **2021년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에 참여할 케어테이커 또는 케어테이커 그룹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 성북구, 용마루 1내에 속한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지구에서 길고양이를 보호는 케어테이커 또는 케어테이커 그룹

**지원내용**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이주 대책 마련

**1차 모집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6월 4일  
\* 온라인 신청서 조기 마감  
\* 현장 방문/비행차 우회 조기 모집이 가능합니다.

**참여방법(온라인)**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seoul@ekara.org)로 접수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으로 제출

**신청처** | **신청기간** | **문의** | **문의처**

☎ 상담 전화: 02-2600-1234 | ☎ 이메일: seoul@ekara.org

**지원하는 이유**

Q. 어디에서 수술하나요?  
해당 사업을 위해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행합니다.

Q.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신 신청자에 대해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해 주신 신청자의 이주 해당 지치구의 협안하여 공동 포획 임종과 이주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사전 간담회를 진행 하고 중성화와 기타 활동을 진행합니다.  
\* 신청자가 현장 중성화 활동에 참가하시면 차량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포획과 행안 이동이 지원되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 포획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은 지원하되 신청자 본인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Q. 길고양이에게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 및 구충이 제공되며 구내와 동의 치료가 가능한 사설내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전화: 010-2048-0992(오전 10시~오후 5시)  
이메일: seoul@ekara.org  
홈페이지: www.ekara.org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

## 2. 현장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기한 바와 같이 설정한 기준들에 의거하여 현장 조사 대상지를 정하여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된다. 현장 조사 시 주안점은 우선 실질적인 고양이들의 개체수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때 신청자인 케어테이커 동행이 필수적이다. 개체수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지원의 규모와 소요되는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밀한 현장 조사 요구된다.

또한 현장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적절한 이주 예정지'의 존재다. 고양이 이주에 있어서 주된 방법은 사전에 이주 예정지와 그 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설정하여 기존에 고양이들이 이용하던 급식소를 이주 경로를 따라 매일 조금씩 옮겨 고양이들이 급식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식지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주 예정지는 자신의 영역 외로 잘 이동하지 않는 고양이의 생태를 고려하여 신청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이 가장 좋다. 고양이들이 이주 예정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 또한 고양이들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또한 이주한 고양이들이 이주 예정지에서 원래부터 서식하고 있던 고양이들과 무리 없이 융화되어 살아가야하므로 이주 예정지의 고양이 서식 실태 파악과 그들을 관리하는 케어테이커의 존재 여부 확인도 필수적이다.

이주 예정지 설정은 사업의 성패와 고양이들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지점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에 자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적절한 이주 예정지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계류장을 통한 고양이 이주'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2. 현장 활동 - ③ 차선택으로서 계류장을 통한 고양이 이주에서 알아보려 한다.

신청서가 접수된 지역들의 현장 조사가 모두 종료되면 그 중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 현장조사 주안점

### 도시정비구역 현장에서 파악할 것

- 🐾 길고양이 개체수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 🐾 길고양이 주요 활동 시간대
- 🐾 중성화 비율
- 🐾 급식소 위치 및 개수
- 🐾 철거 예정일과 조합, 철거업체, 시공사 등 정보
- 🐾 도시정비구역 내 활동하는 케어테이커 정보

### 고양이 이주 예정지역에서 파악할 것

- 🐾 도시정비구역과 위치 및 거리
- 🐾 도시정비구역에서 이주 예정지로 이주 경로 설정
- 🐾 이주 예정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정보 (중성화 비율, 급식소 위치 및 개수)
- 🐾 이주 예정지 내에서 활동하는 케어테이커에 관한 정보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도시정비 사업지



도시정비구역 주변 고양이 이주 경로 탐색



케어테이커가 직접 제작,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 급식소

### 3.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축

본격적인 길고양이 보호 활동에 앞서 도시정비구역 조합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사업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는 크게 사업 신청자인 지역 케어테이커, 조합 관계자, 행정기관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또는 필요 시 도시정비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이다. 무엇보다 도시정비구역 내에서 동물보호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 관계자 및 철거업무 책임자와의 논의가 주를 이룬다. 논의를 진행할 때, 주요한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사업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의 설치
- 🐾 도시정비구역 내에서의 케어테이커 활동 보장
- 🐾 공가(空家)를 활용한 '임시 계류공간'의 확보
- 🐾 향후 고양이 이주를 고려한 생태 통로 확보 등

고양이들의 중성화와 치료를 위한 포획 작업을 위해 포획 담당자와 지역 케어테이커가 도시정비구역 내로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이주하고 남아 있는 공가(空家)를 활용한 계류 공간의 확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양이를 구조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나면, 수술 부위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수컷은 수술 후 최소 24시간, 암컷은 수술 후 최소 72시간이 회복 시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수술 직후 바로 방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복 시간 동안 고양이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양이 임시 계류공간'이며 일반적으로 조합 관계자 내지 철거 책임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도시정비구역 내의 공가(空家)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임시 계류 공간의 역할

도시정비구역이라는 열악한 서식 환경으로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는 길고양이들이 많다. 이 중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질병을 치료받도록 하고, 대부분 병원 처치 후 일정 기간 동안 내복약을 복용하거나 치료 경과를 관찰해야하는 등 추가적으로 돌봄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물론 임시 계류 공간에 있는 고양이 돌봄과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케어테이커가 맡게 된다.

따라서 계류 공간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일반인인 지역 케어테이커가 이를 조합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간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필요사항을 조율하며 확보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결정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구역 내에서의 활동을 보장 받고 고양이 임시 계류 공간 확보와 더불어 이주 단계에서의 '생태 통로' 확보도 필요하다. 도시정비 사업의 특성상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접어들면 철거 구역에 철제 펜스를 두르게 되는데, 한번 펜스가 둘러지고 나면 미처 이주를 하지 못한 고양이들이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마다 철제 펜스를 바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설치하거나, 고양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 '생태 통로'이다.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장치들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모두 준비한 뒤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을 시작해야만 변수를 최소화하고 흑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구역 고양이 보호활동 간담회

#### 4. 활동 계획 수립

사전 작업 단계의 마지막으로써 본격적인 현장 활동 시작에 앞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급식소의 위치와 개수, 구역별로 활동하는 고양이의 정보와 개체수를 정리하여 일정을 수립한다.



고양이급식소 위치 및 개체 파악



진중TNR 전 현수막 게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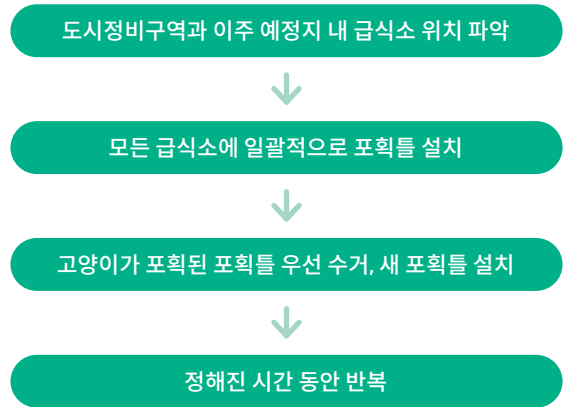
### 1. 길고양이 집중 TNR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에서는 TNR 앞에 집중의 개념이 추가로 붙게 되는데, 이는 케어테이커들이 도시정비구역과 고양이 이주 예정지 내 고양이 서식 정보를 파악한 후 TNR 일정을 수립하여 모든 급식소에 일괄적으로 포획틀을 설치해 최소한의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고양이를 포획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는 도시정비구역의 특성상 되도록 빠르게 길고양이 TNR을 진행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잦은 포획 시도로 고양이들이 포획틀에 익숙해져 포획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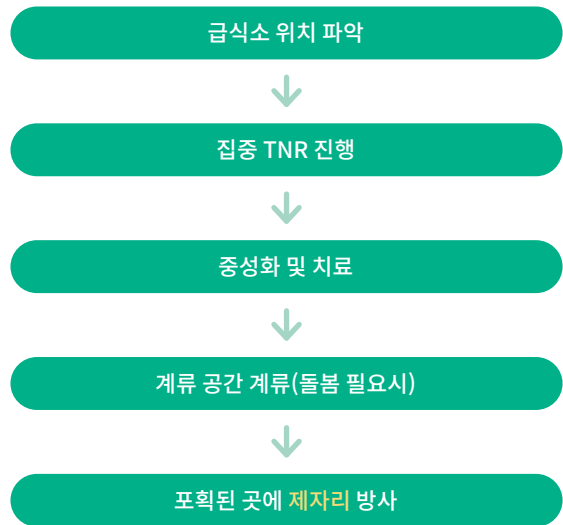
또한 포획 시기가 각기 달라져 사업 도중에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가 임신을 하는 등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 본격적으로 TNR 대상 고양이들을 위한 집중 TNR을 시행할 때에는 집중 TNR 활동 순서(39p)에 따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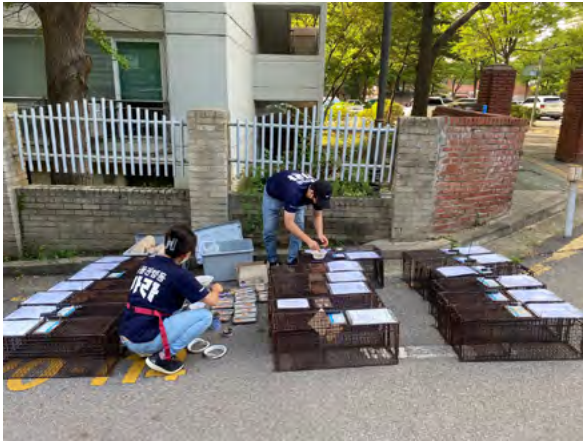
포획된 고양이는 병원으로 이동하여 중성화를 실시하고, 필요시 질병 및 외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다. 이후 필요한 회복 기간 동안 사전에 확보된 계류 공간에서 계류한다. 계류까지 모두 마친 고양이는 포획되었던 자리에 그대로 방사한다.

### 집중 TNR 활동 순서



### 집중 TNR시 고양이 방사





포획틀 준비 및 설치

## 2. ‘급식소 이동’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

집중 TNR 후 방사까지 완료된 고양이들은 사전에 지정된 이주 예정지를 향해 이주 경로를 따라 이주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고양이가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주해야만 성공적으로 이주 예정지에 정착할 확률이 높으므로 도시정비구역 내에서 유지 및 관리 중이던 고양이 급식소를 이주 경로를 따라 매일 조금씩 위치를 옮겨 이주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고양이로 하여금 매일 조금씩 옮겨가는 급식소를 따라 영역을 확장하고 낯선 이주 예정지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고양이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앞서 기술한 ‘원래부터 이주 예정지에 서식하던 고양이들의 중성화’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만 두 개체군이 영역 다툼 등의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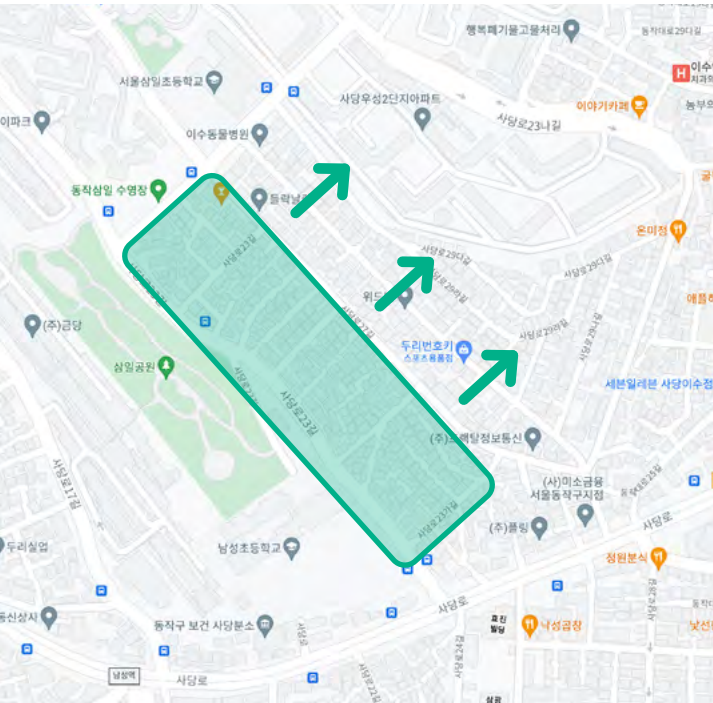
또한 도시정비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본격적인 고양이 이주와 건물 철거를 위한 펜스 설치의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 긴박한 상황에서 고양이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생태통로를 확보해야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정 구간마다 펜스에 고양이가 오갈 수 있도록 일정 공간을 열어두거나 펜스 설치 시, 바닥에서 거리를 두고 위로 띄워서 설치하는 등의 형태가 있다.

다음은 동물권행동 카라가 2020년과 2021년에 2년간 진행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들이다.

## 사례 1

4차선 도로로 막혀있고 주택가 쪽으로 고양이들이  
이주시키고 싶은데 계단이 많고 주택이 빼곡해요.  
고양이들이 잘 이주할 수 있을까요?

사당 3동 지역주택재건축



## 지역 특징

재건축지역 주변 삼일공원 방향과 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4차선 도로가 있어 막혀 있다. 다행히 다른 방면으로 주택가가  
인접해있다.

## 이주 대책

지도상 북동쪽으로 고양이들이 이주가 적합해 보였고, 계단 중  
간 중간에 고양이 급식소를 임시로 설치해서(주민의 허락을  
받고) 고양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다. 구청 동물보호 팀  
장, 주무관님과 상의 후, 협조를 구해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TNR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재건축지역 공가(空家)안에 지속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이 있  
어 고양이들이 안전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가(空家)  
안에 밥을 주면 안된다’는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서울시와 동  
물권행동 카라 이름이 새겨진 고양이급식소를 이주 예정지역  
(주택가)의 적절한 위치에 고정으로 설치하여 케어테이커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고양이의 이주를 유도했다.



재건축지역 인근 주택가 계단 고양이 이주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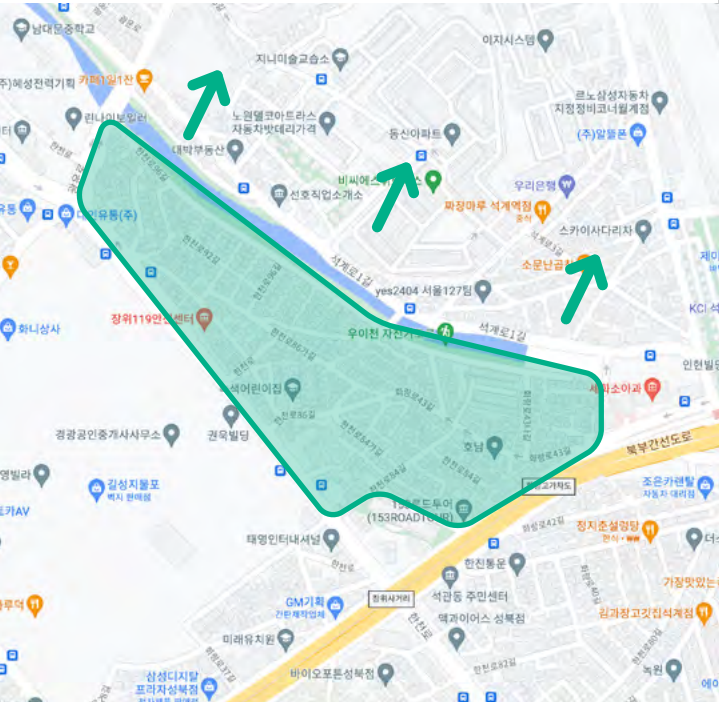


재건축지역 인근 주택가 고양이 이주 통로

## 사례 2

우이천, 전철, 6차선 도로가 있어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장위6 주택재개발



## 지역 특징

이미 철거된 재개발지역과 전철이 맞닿아있고 우이천까지 흐르고 있어 최선의 방법이 필요했다.

## 이주 대책

재개발지역 주변이 막혀있는 듯 보여, 길고양이들이 주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통로가 없는지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논의하였다. 우이천 위에 구름다리과 징검다리, 작은 지상 공영주차장 등을 급식소 이동 경로로 염두에 두고 현실성이 높은 경로를 선택해야 했다.

구름다리나 징검다리 이용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지상 주차장 쪽으로 출입이 용이해 보여 급식소 이동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를 계획하였다.





TNR지원 후 펜스 설치모습



고양이이주 예정지로 연결된 유일한 지상 이동통로



장위6구역 재개발지역 인근의 우이천 구름다리

### 사례 3

8차선 넓은 도로와 낭떠러지, 아파트 높은 벽에 가로 막혀 있어요.

봉천 4-1-2 주택재개발



### 지역 특징

- 동: 아파트의 높은 벽과 낭떠러지 등으로 일부 막혀 있음
- 서: 지하철도와 넓은 도로
- 남: 초등학교가 있음
- 북: 산이 연결돼 있고 길고양이 학대가 의심되는 구역이 위치

### 이주 대책

지도상 동쪽과 북쪽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이주 예정지로 적합해 보였지만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동쪽 아파트의 벽 일부는 약 4m 높이로 매우 높았으며 낭떠러지도 있었다.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고양이 이주 시, 급식소 설치 허락을 받기 매우 어려워 이주 예정지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경우, 높은 벽을 제외하고 낮고 완만한 입구와 벽을 찾아 고양이 이주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동쪽의 아파트 인근 주민센터에 길고양이 공식급식소 1개가 있어 주민센터 주변과 높은 벽이 없는 아파트 지역으로 급식소를 임시로 설치하였다.



높은 벽의 아파트 담장



이미 철거가 시작된 현장  
케어테이커들의 자제적인 TNR도 이루어지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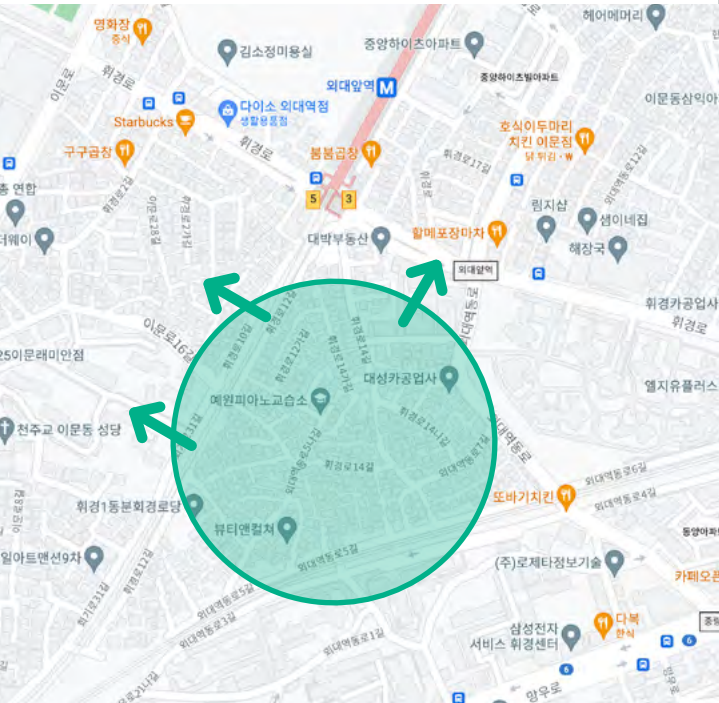


← 고양이 이주를 위해 급식소 설치

## 사례 4

재개발 지역 주변이 전철과 육교 등으로 막혀 있어요.

### 휘경 3주택 재개발



## 지역 특징

- 동: 4차선 도로와 길고양이에 호의적이지 않은 아파트
- 서: 전철과 육교
- 남: 전철과 지하도
- 북: 전철역과 도로

## 이주 대책

해당 지역은 전철역과 철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아파트는 길고양이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던 곳도 있었다. 지하도를 통해서도 고양이가 이동한 흔적들이 보이긴 했지만 지하도와 연결된 맞은편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일대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이라 이주를 위한 급식소 설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주 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철로 위의 육교는 고양이에겐 위험할 것 같지만 의외로 고양이들은 육교를 이용해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육교 계단 초입과 중간에 임시 급식소를 놓고 매일 몇 미터씩 맞은편 방향으로 급식소를 이동 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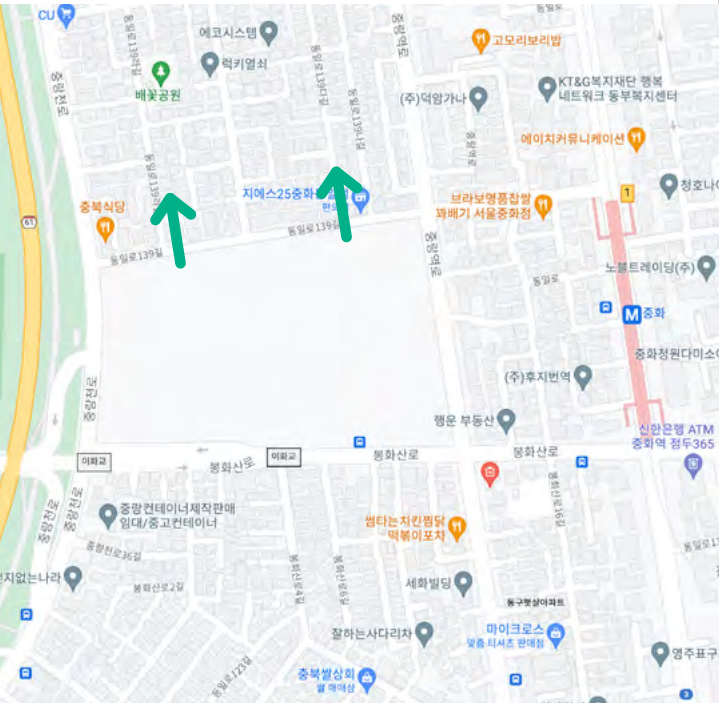


이미 사람의 이주가 90% 진행된 상황

## 사례 5

고가도로와 넓은 8차선 도로로 막혀 있어요.

중화 1 재정비촉진구역



## 지역 특징

동: 왕복 4차선(8차선) 도로

서: 왕복 4차선 도로가 종량천 뚝방과 연결되어 있음

남: 왕복 4차선 이화교 진입로

북: 주택가

## 이주 대책

해당 지역은 8차선 도로가 있어 로드킬의 위험 등 맞은 편 구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위험한 8차선 도로가 세 방향으로 막혀 있어 나머지 한 방향(주택가)으로 이동하는 것만 가능한 지역이었다.

다행히 이주 예정지에 고정적인 급식소가 몇 군데 있는 상태였고 케어테이커들의 노력으로 공식 급식소 2개 추가 설치를 허락 받아 정기적으로 밥을 줄 수 있었다. 고정된 급식소는 길고양이들에게 새로운 곳에서도 먹이 활동이 가능함을 각인시켜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밥자리 이동을 통한 이주를 진행할 수 있었다.



넓은 도로와 도로 진입로 부분



사람의 이주가 이미 끝난 상황

## 사례 6

도시정비구역 주변에 근린공원 2곳이 있고 고속도로로 막혀 있어요.

청담 삼익아파트



## 지역 특징

동: 고속도로로 막혀 있음

서: 상가 밀집지역과 왕복 5차선 도로

남: 근린공원과 초등학교, 곧 재개발이 이뤄질 아파트

북: 근린공원, 재개발 계획이 없는 아파트 상가, TNRI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 이주 대책

해당 지역은 재건축 지역으로 북쪽과 남쪽의 근린공원으로 자연스러운 이주가 가능한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곳이었다. 해당 구청 공원 녹지과의 비협조로 공식 급식소 설치는 어려웠지만 이주 목적의 임시 급식소 설치는 가능했다.

북쪽의 아파트는 TNRI이 90% 이상 이루어진 곳이라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TNRI을 한 후 법자리 이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가 가능했다. 아파트 외곽의 근린공원 두 곳에도 임시 급식소를 설치하여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도록 유도했다.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또 다른 근린공원



재건축 지역 옆의 근린공원

### 3. 차선책으로서 ‘계류장’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이주는 ②와 같이 급식소 이동을 통한 자발적 이주가 기본 원칙이자 형태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고양이를 인위적으로 이주 예정지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도시정비 사업이 이미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의 ‘급식소 이동’을 통한 길고양이 자발적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의 차선책으로서 일종의 강제 이주 방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큰 도로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는 등 주로 정비구역의 위치가 섬처럼 고립되어 고양이들이 마땅히 스스로 이주할 경로가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주 경로는 배제하고 이주 예정지만 설정한 뒤, 해당 이주 예정지에 ‘계류장’을 설치하게 된다.

이 때 계류장의 사양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잠금 장치가 갖춰져야 하고, 안에서 지내는 고양이들이 외부의 환경과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전면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여야 한다.

계류장의 확보와 설치가 끝나고 나면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집중 TNR을 통해 도시정비구역의 고양이들을 포획, 중성화 및 치료를 실시한 후 설치한 계류장 안에서 방사한다. 이후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계류장 안에서 고양이들을 계류하며 매일 안정적으로 먹이와 식수를 급여하고 관리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매일 계류장의 출입 보안을 점검하고 고양이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주체는 사업 신청자인 케어테이커이다.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이주 예정지 내 계류장에서 고양이들을 지내게 하며 고양이들이 이주 예정지의 환경에 적응하고, 인근에 서식하며 배회할 이주 예정지의 고양이들과도 익숙해질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계류 기간이 끝나면 계류장의 문을 개방하여 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가 새로이 영역을 확보하고 자리 잡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계류장의 문을 개방하여 방사를 한 후

에도 한동안은 계속 문을 열어둔 채 계류장 내부에 먹이와 식수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이의 특성 상 이주 예정지 내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동안 머물렀던 계류장을 오가며 먹이와 식수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고양이들이 이주 예정지 내 곳곳에 설치된 급식소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계류장을 철거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계류장의 설치 및 관리라는 점 때문에 인력, 노동력, 발생 비용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급식소 이동을 통한 자발적 이주 방법에 비해 이주 성공률도 낮은 편이므로 고양이 이주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계류장 내부 모습

## 계류장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 순서

이주 예정지 내에 계류장 설치



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치료



계류장 고양이들 보호 돌봄



방사



계류장 문 열어둔 채 일정기간 유지



계류장 철거



고양이 이주 예정지역에 계류장 설치



### 1. 이주 모니터링

중성화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성공적으로 이주가 진행되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했듯 급식소 이동을 통한 고양이들의 자발적 이주 방법은 케어테이커가 급식소를 매일 조금씩 옮기고, 고양이 또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하며 자리를 잡게 되므로 실질적인 이주 완료까지는 짧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주가 진행되는 와중 생각지 못한 변수나 난관에 봉착하거나 이주 경로를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므로 고양이 이주를 진행 중인 케어테이커와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이주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유해야 한다.

### 2. 지속적인 급식소 청결 관리와 유지

고양이들의 복지 확보와 주민들의 불편 민원 예방을 위해 이주를 진행하는 도중과 이주가 완료된 후에도 지역 케어테이커는 책임감을 가지고 급식소의 청결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는 고양이 이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관리 및 감독 되어야 하며 케어테이커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고양이 이주 예정지역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 3. 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 주도의 캠페인 활동

일정한 구역 내에서 중성화를 실시한 뒤 급식소를 통해 고양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인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개체군 관리가 가능한 한편, 사람에게 익숙해진 고양이들이 학대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 또한 상존한다.

‘급식소’라는 고양이들이 모이는 지점이 확보되어 있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개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급식소와 그 인근의 고양이들은 쉽게 동물학대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으로 보호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에서는 고양이 개체군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할 구역 내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 Q&A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보호는 민간의 활동만으로 온전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카라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각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서울시 정비구역 사이트 <정비사업 정보모방>에서 확인한 2021년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상의 현황이다.

###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현황 2021년 7월 31일 기준

	자치구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합계
1	강서구	2	4	6
2	양천구	1	0	1
3	구로구	2	2	4
4	영등포구	2	1	3
5	동작구	5	1	6
6	관악구	0	3	3
7	금천구	0	0	0
8	서초구	5	10	15
9	강남구	4	4	8
10	송파구	0	3	3
11	강동구	1	6	7
12	광진구	0	0	0

	자치구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합계
13	성동구	2	3	5
14	용산구	3	1	4
15	마포구	0	2	2
16	서대문구	3	3	6
17	은평구	4	0	4
18	종로구	2	0	2
19	중구	1	0	1
20	동대문구	2	3	5
21	중랑구	1	1	2
22	성북구	3	7	10
23	강북구	0	1	1
24	도봉구	1	0	1
25	노원구	3	0	3
<b>합계</b>		<b>47</b>	<b>55</b>	<b>102</b>

올해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서초구, 성북구, 강남구, 강동구 순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라가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는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8개소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자치구에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보호에 대

한 문의가 없어 케어테이커들의 돌봄이 부재하거나 케어테이커가 있더라도 돕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케어테이커 단체가 도시정비구역 조합 및 철거 책임자 등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동물복지 확보 측면에서 고무적인 변화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해진다면 조합 및 철거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며 활동 조건들이 원만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이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에 대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과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가 왜 필요한가요? 건물이 철거될 때 고양이들이 나가지 않나요?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큰 소음이나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놀라 건물 지하와 같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곧 철거될 구역 내 고정된 급식소를 이주 예정지로 향하여 소폭 이동시키며 길고양이에게 안전한 영역을 각인시켜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케어테이커들은 고양이들이 이동하는 밥 자리를 잘 인식하여 따라오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영역을 각인시켜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끼를 보호하며 포유중인 암컷 고양이의 경우 외부의 큰 자극에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역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안전한 이주를 목적으로 고양이 임시 계류공간과 같은 필요한 공간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등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올바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 내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에 대한 예산이 없을 때 케어테이커들에게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나요?

2020년에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경기도는 동물보호 조례에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와 보호 노력을 신설하며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우선 중성화수술 및 치료 예비비, 생태 통로 구성, 고양이 임시 계류에 필요한 장비 등 보호활동에 필요한 제반 예산 등의 편성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산 편성 이외에도 원만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을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은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정비구역 이해관계자들(조합, 철거사무실, 시공사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에 협조하고 정비구역 이해 관계자들과 케어테이커들간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활동의 필요성이나 TNR 캠페인, 동물학대 금지 캠페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의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행정기관이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극복 & 건강한 추석 기원

조합특보 · 신뢰와 화합 · 차이를 고초를 · 최고의 명품 프리미엄 아파트 제안속  
**NewsLine** 제2020-7호 2020.9.25.

### 청담삼익 재건축 소식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소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청담동) 삼익아파트 1001호  
 TEL: 02-555-1111 FAX: 02-555-1111

통보하여 안전 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조합 회의실에서 2020. 7. 20. 오후 3시에 동물권 행동 카라 신오팀장 외 3명, 서울시청 시민 건강국 동물 보호과 윤O 외 1명,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 홍O영, 캣맘 홍O운 외 5명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협조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사업구역 내 길고양이를 방지할 경우 고양이의 특성상 전원 사망할 확률이 높음으로 중성화 수술, 급식소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게 사업구역 밖으로 유인하여 길고양이를 살리는데 상호 협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합은 길고양이 유인 포획, 중성화 수술 시 관련 차량 진입 등 길고양이 급식을 위한 출입 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길고양이 유인을 위한 급식소 운영은 주변 캣맘들이 자원 봉사로 운영합니다.  
 ※ 중성화 수술은 7월 말일 이내 시행 예정, 중성화 수술은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실시하고 관련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함



2020년 카라와 함께 했던 사업자의 재건축 조합 소식지 내용



구청, 조합, 동물보호단체, 케어테이커 간담회를 통한  
고양이 임시 계류공간 확보



도시정비구역 내 공가(空家)를 활용하여  
고양이 임시 계류공간 마련

## 고양이 임시 계류공간

도시정비구역의 특성 상 당장 방사가 어려운 아픈 고양이 등 임시로 보호해야하는 고양이들이 있을 수 있어 '임시 계류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과 조합 등 관계자들이 정비구역 내 공가(空家)를 '임시 계류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때 정비사업 상황에 따라 '임시 계류공간' 사용 기한을 정하고 관리 주체(케어테이커 등)도 정해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돌봄을 이어갈 수 있다.



고양이 생태통로

## 길고양이 생태통로

생태 통로를 마련하는 주체는 시공사지만, 민간인 케어테이커 단독으로 통로 확보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 기관이 주도적으로 조합, 시공사, 케어테이커 등과 생태 통로의 위치, 개수 등을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 길고양이 TNR 예산 확보

도시정비구역의 특성상 진행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우선적 TNR 예산이 확보된다면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 급식소 설치 및 캠페인

길고양이 이주를 위해서는 TNR이 우선시 돼야하기 때문에 TNR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급식소가 필수이다. 간혹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하다보면 급식소 설치 반대 민원에 의해 속도가 더딘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길고양이 임시 급식소(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위해) 설치 필요성을 담은 안내판이나 안내문 게시로 안정된 급식소 설치를 도울 수 있다. 길고양이 공존은 일반 시민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역할이 중요하다.

## 도시정비구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안전한 곳에 방사하면 되나요?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는 강제에 의해 자신의 영역을 갑자기 벗어나게 되면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리 '이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을 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다른 곳에 방사 된 고양이는 귀소본능이 있어서 자신이 살던 철거 예정지로 이동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 때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건너다가 로드킬로 목숨을 잃거나 다양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이주시킬(급식소 이동을 통하여) 정비구역 주변의 이주 예정 지역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는지 여부와 기존 고양이들의 밀도 및 중성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양이 이주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길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동물이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4조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2. “동물이 갈증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사유지가 아닌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나 겨울집 등 설치물을 놓을 때는 주변의 동의와 허락 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후에는 급식소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자체 TNR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율 70%(10마리 기준 7마리 중성화수술 완료)가 유지되도록 케어테이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1

## 전국적인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제고

주거 및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 기능 개선 등의 목적인 도시정비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심지 및 주택가의 서식동물인 길고양이 생존이 걸린 보호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와 보호 노력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부산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도 행보를 같이하며 각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보호의무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도시정비구역 현장 관계자들이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실질적인 보호 활동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 동물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정책 계도와 이해관계자 간의 중간 소통 창구

## 2

## 행정기관내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 선결 과제로서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다층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 대상으로 운영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조합사무소 및 시공사에 길고양이 보호 노력을 담은 안내 리플렛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 가이드북을 통해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 내 보호 노력이 명시된 만큼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현황을 파악한 후, 구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운영 활동 계획 및 합리적 예산 산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우선 TNR’ 예산 확보는 실효성 있는 활동 이행에 매우 필요하다. 이때 최소 시간에 최대 마릿수 포획인 ‘집중 TNR’이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단체와 협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치료 가능한 개체가 포획될 경우를 대비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치료 예비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자치구 동물복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동물과의 공존을 표방하고 있다. 길고양이 증성화 및 급식소 지원 등 보편적인 계획에서 나아가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활동 이행에 필요할 것이다.

또는 케어테이커가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③항 “시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해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도 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후 꾸준한 돌봄 지원이나 길고양이 구내염 약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마포구는 최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래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다.

-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 △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 3

## 케어테이커들의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 주체적 참여

동물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길고양이 보호에 앞장서는 케어테이커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길고양이 밥 주기, TNR 등 각종 정보 교환뿐 아니라 길고양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작가이자 강사, 케어테이커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하연작가가 2020년 5월, 전국의 케어테이커 모임을 제보를 받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회원수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 꾸준히 활동하는 케어테이커 모임이 서울에만 30개 가량, 전국적으로는 1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해 버스 광고, 정류소 배너 광고, 지하철역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점차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조례개폐청구권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장려하기도 한다.

# 용어 설명

## 케어테이커가 직접 지역 조례 제정에 참여하기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http://www.juminegov.go.kr) 사이트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청구하기, 주민이 직접 청구권을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민참여제도-주민조례발안과 주민 투표를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은 우리 동네 정책(조례)을 주민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며 주민 투표에서는 우리 동네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듯 사각지대와 다름 바 없는 도시정비구역 동물을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케어테이커,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행정기관은 서식지를 잃게 되는 길고양이 상황이 고려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편성, 보호활동이 보장된 행정조치 등 실질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난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을 진행했다. 신청지역마다 동일하게 접목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의 안전한 이주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자치구 자체의 활동 지원 제도가 부재함에도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만한 보호 활동이 가능했다.

작은 참여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시책으로 수립된다. 상시 현장에서 길고양이 복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인 ‘케어테이커’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는 참여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여 선진화된 동물복지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구역** 노후한 건물을 허물고 재정비하는 일명 재개발 재건축지역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 중 하나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 조합설립추진
5. 조합설립인가
6. 사업시행인가
7. 관리처분인가
8. 철거신고
9. 착공신고
10. 일반분양승인
11. 준공인가

**길고양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영역동물** 일정한 영역 안에서 살면서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동물

**케어테이커** 길에 사는 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제공하며 돌보는 사람

**중성화** 번식능력을 없애기 위한 수술

**TNR** Trap(포획)-Neuter(중성화)-Return(제자리방사),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

**지자체 TNR**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포획자(또는 케어테이커)가 TNR 대상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지정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후 제자리 방사하는 활동

**임시 계류공간** 도시정비구역의 특성 상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사하기 전에 임시로 보호하는 공간

**계류장** 급식소를 통한 점진적인 이주를 시킬 수 없는 경우, 고양이 이주 예정지역 내에 수개월동안 고양이들을 계류 시킨 후 방사할 계획으로 만드는 설치물



# 2021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가이드북

- 발행처** (사)동물권행동 카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서교동 457-5)  
**전화** 02-3482-0999  
**홈페이지** [www.ekara.org](http://www.ekara.org)  
**이메일** [info@ekara.org](mailto:info@ekara.org)  
**발행일** 2022년 2월 4일